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14쪽

재정관리담당관	정상택	2133-6860
주민참여 예산팀장	최의수	2133-6874
담당자	전양례	2133-6875

올해 市 주민참여예산사업(500억원) 시민이 직접 뽑는다

- 제안사업 선정 시 전자투표 도입으로 시민참여 대폭 확대 및 공정성 확보
 - 전체시민 전자투표(45%) + 참여예산위원 250명(45%) + 전문설문기관 선호도조사(10%)
 - 총회상정사업수의 10% 범위 내(1인 10표 이내) 투표권 부여하여 심도있는 깐깐한 사업선정
-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운영으로 개선
 -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市 전체공통사업에 375억원
 -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區 지역사업에 총 125억원(자치구별 5억원)
- 3단계 평가시스템 구축, 사후관리 및 평가강화로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
 - ▲ 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 ▲ 시 평가(전문평가단) ▲ 주민상시평가
- 모바일시스템 구축 및 '상시 제안방'을 신설하여 제안사업 상시화 운영
 - 정기공모기간외 상시 제안사업 접수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발굴
- 전담조직·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제도운영의 전문성 확보
-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방법 대폭 개선
 - 사업비 분담, 주민의견 수렴, 참여도 및 노력도 등 현장확인 결과 심사반영
- 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2015 서울시 참여예산제 시작
 - 공모기간 : 2. 17(화) ~ 3. 4(화)
 - 공모인원 : 163명 (구별 4~8명) ※ 250명 중 62명 연임, 시·의회 추천위원 25명 제외
- '16년 사업선정을 위한 제안사업 접수 : '15.3.16 ~ 4.30

-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는 대폭 늘리는 한편 사업선정의 공정성은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‘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’를 만든다고 밝혔다.
- 이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운영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총 30여 차례 985명에 달하는 시민, 자치구, 예산전문가 등 참여주체별 토론회, 워크숍,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.
- 특히 올해는 참여예산위원 250명과 더불어 서울시민 전체가 제안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, 「참여예산 모바일 시스템」을 구축하여 시민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고,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.
- 또한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사업을 이원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市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,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에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- 이는 지난 3년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과 시에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써 광역도시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.

구분	市 전체공통사업	區 지역사업
사업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▸ 2개 자치구 이상의 광역적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1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
사업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총 375억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총 125억원(자치구별 5억원)

- 또한 올해부터는 일년에 1회에 그쳤던 사업제안을 연중 상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‘상시 참여예산 제안방’을 개설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.
 - '15년 정기공모기간 : '15. 3. 16. ~ 4.30.
-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심사 방법도 대폭 개선하여 제안내용 심사와 더불어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, 사업제안 후 변화과정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노력과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.
- 한편 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광역도시 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참여예산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,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로 반영할 계획이다.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 시작

- 서울시는 먼저 2.17(화)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를 시작으로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했다.
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50명이 전원 순수시민으로 이 중 225명은 공모, 25명은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. 공모위원 225명은 2014년 위원 중에 출석률 50% 이상의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한 62명(1회에 한하여 연임

가능)과 이번에 새롭게 163명을 공모해 구성한다.

- 공모기간은 2.17부터 3.4까지이며, 구별 공모인원은 연임 위원수에 따라 4명 내지 8명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모집한다.
- 지난 3년간 참여예산위원 공모경쟁률은 평균 10대 1로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.

연도별	공모인원	신청인원	경쟁률
2012	150명	1,664명	11:1
2013	127명	1,383명	11:1
2014	143명	1,138명	8:1

2015년 참여예산제 주요 개선사항

-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년차를 맞아 3년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한층 더 성숙되고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‘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.0’으로 새롭게 출발한다.

<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>

- 우선 올해 제도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.
 - 먼저 市 전체공통사업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, 올해 사업규모는 총 375억원에 달한다.
 - 시민들에게 제안사업 접수를 받아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심사를 거쳐 시민과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.
 - 또한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시 위원회에서

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총 125억원이며, 자치구별 5억원 이다.

〈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참여 대폭 확대〉

- 전년도에 참여예산위원 250명과 시민참여단 2,500명을 도입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나, 시민참여를 대폭 늘려 주민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.
 -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(엠보팅)과 컴퓨터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직접 본인이 선호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.
 - 아울러 전자투표 도입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투표대상사업수도 8개 분야에 5개 이내 총 40여개로 조정하고, 1인 투표수도 10표 이내로 부여하여 투표에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.

-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심사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과 함께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더욱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-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개최예정인 ‘2015년 한마당 총회’에는 사업선정과 더불어 예산낭비사례발표, 연극 등 재정분야 시민문화축제의 장으로 다채롭게 운영하고자 한다.
 - 한마당 총회 : '15. 7. 24~25, 장충체육관

〈상시 참여예산제안방 신설하여 연중 제안사업 신청접수〉

-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상시참여제안방을 신설하여 연중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,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- 상시 참여예산제안방에 접수된 사업은 분기별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선정을 한다는 것이다.
 - 지난 3년간 정기공모기간(접수기간 : 약 40일)동안 사업접수를 받으면 사업을 심사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, 단기간 공모사업 접수 및 심사로 인하여 행정청 위주의 사업이 주로 선정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.
 - 올해 정기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도 방식으로 사업심사는 진행하되, 주민들의 참여 및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.

〈 전담팀 및 지원센터 개설 〉

- 올해 시는 전담팀 신설에 이어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한다.
 - 市 기획조정실 내 주민참여예산팀 및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‘세계 광역도시 주민참여예산 선도 모델’로 만들어가고자 한다.
 - 지원센터에는 주민참여예산관련 학계, 민간단체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시민 - 자치구·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시민들의 제안사업 신청 시 코디네이터, 시 위원회 250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.
 - 전담팀 : 주민참여예산팀(4명) 및 참여예산지원센터(민간전문가, 코디네이터 2명)

〈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강화 〉

-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,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이다.
-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참여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하여 실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것이다.
 - 먼저 참여예산위원 250명은 상반기 2회 선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 추진과정과 과다한 설계 등으로 예산낭비요소는 없는지 진행사항을 점검한다.
 - 하반기에는 시에서 평가부서와 합동으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이 진행되는지, 사업비 집행실태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결과는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 모바일 홈페이지에 ‘주민상시평가란’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제안 사업에 대하여 상시로 관심 갖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전절차이행을 고려한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운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여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.

〈 2015 부적격 심사기준 〉

- 지정된 공모사업 외 다른 내용으로 제안한 사업 및 1개 이하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
-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(사업추진이 위탁 추진 포함)
- 총 사업비(세부사업 기준) 10억원 이상인 사업, 공연·축제·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 사업, 30억 이상으로 투자심사 대상사업
-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
-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
-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- 국비매칭사업은 세출재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배제

- 박원순 서울시장은 “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사업제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도록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심사 시 반영하는 등 본 제도가 상시화 될 수 있는 실질적 참여예산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 “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도 운영상의 성과와 미비점을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개선방안

□ 2015 개선방안

- ▶ 예산전문가, 참여예산위원회, 자치구,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3년간 운영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하여 토론회, 워크숍, 설명회 등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,
- ▶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 2015 운영계획 수립 운영

市 사업과 자치구 사업 구분이 없음

- ▶ 市 사업과 자치구 사업 신청제한 없음
- ▶ 區 지역회의에서 30억 범위 제안
- ▶ 시민제안사업 30억 범위 내 자치구 검토 제안

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운영

- ▶ 시 전체공통사업 375억원 규모
 - 2개 이상 자치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
- ▶ 지역사업(자치구) 125억원 규모
 - 5억원(실링) × 25개 자치구 = 125억원

총회상정사업 투표 시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참여단 50:50 반영

- ▶ 참여예산위원 250명 : 50% + 시민참여단 2,500명 : 50%

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선정 공정성 확보 및 시민참여 확대

- ▶ 참여예산위원(250명) 45% + 전자투표(전체시민) 45% +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 10%

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 1회

- ▶ 참여예산위원 연 1회 모니터링 실시(매년 9월)
- 사업부서에 피드백이 제대로 안되고 사후관리가 안됨

사후관리 및 평가강화 ⇒ 자치구 실링액 조정 및 인센티브 반영

- ▶ 3단계 평가시스템 구축
 - 참여예산위원 모니터링(상하반기), 市 평가, 주민상시평가(홈페이지 등)
- ▶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

총회상정사업 제한 없음

- ▶ 분과위에서 30% 이상을 득표한 사업 전체 총회 상정

※ '14년:560개 사업 1인당 투표 수 168표



총회상정사업 전체 40여개 이내 - 1인당 10표 이내 투표권 부여

- ▶ 분과별 5개 이내 총 40여개 이내 사업 총회 상정
- ▶ 총회상정사업의 10% 범위 내
→ 1인당 10표 이내 투표수 조정

정기 공모기간(연 1회)에 제안사업 접수

- ▶ 정기 공모기간(연1회)에 제안 사업 접수 → 심사 → 참여예산 사업 확정
- '14년 4.1~5.9 제안사업 접수



정기 공모와 상시 공모 병행하여 제안사업 접수

- ▶ 정기 공모사업은 기존방식 추진
- ▶ 상시 공모기간에 접수된 제안사업
→ 분과위 심사를 거쳐 다음연도 한마당 총회 상정

한마당 총회는 하절기 일기에 대비하지 못해 민원제기 및 사업선정에만 그치는 단조로운 행사

- ▶ 매년 7월 말 개최(2일)하여 참여예산사업 선정
- ▶ 하절기 실외행사로 덥고, 강풍, 우기 등 대비 어려움



한마당 총회는 실내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선정과 함께 시민문화축제로 승화

- ▶ 하절기 일기와 무관한 실내체육관에서 참여예산사업 선정
- ▶ 예산낭비사례발표, 연극 등 시민 문화축제 한마당으로 승화

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

- ▶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에서 업무병행



전담팀 및 지원센터 신설 민간전문가 위촉

- ▶ 주민참여예산팀 신설('15.1.1)
- 총 4명(팀장 1, 팀원 3)
- ▶ 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전문가 위촉('15. 3월)
- 총 3명(센터장 1, 코디네이터 2)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(안)

「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」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.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시 예산의 투명성·민주성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5년 2월 17일

서울특별시

1. 공모 및 접수기간 : 2015. 2.17(화)12:00~3.4(수)18:00
2. 신청방법 : 인터넷 신청(<http://yesan.seou.go.kr>), 우편 및 방문신청
3.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

모집인원	신청자격	위원 후보자 선정방법
163명	<p>▶ 공고일 현재 기준</p> <p>가.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.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.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 라. 시 소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</p> <p>※ <u>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</u></p>	<p>▶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(138명) (자치구별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고려)</p> <p>▶ 응모한 시민들 중 19세~29세 중 무작위 추첨(25명)</p>

4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

-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,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
- 주민, 지역회의,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·조정·결정
-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

5. 위원 임기 : 1년

-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

6. 위원 위촉권자 : 서울특별시장

- 위원후보자 중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

7. 위원 해촉사유

-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- 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8. 서류제출 :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(예산학교 입교 시 제출)

- 주민등록증 사본,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,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

9. 신청서 접수

-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, 허위신청(거주지, 재직, 재학 등) 또는 위원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,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 사유에 해당됨

가. 인터넷 접수

- 1) 서울시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yesan.seou.go.kr>
- 2) 신청기간 : 2015. 2. 17(화) 12:00 ~ 2015. 3. 4(수) 18:00

나. 방문 및 우편접수

- 1)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
(근무시간 : 09:00~18:00, 토·일요일은 제외)
- 2)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

다. 접 수 처 :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(5층)

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10. 기타사항

-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경비 지급 및 자원봉사활동실적 인정
 -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,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
 -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<http://yesan.seou.go.kr>)를 참고하여 주시고,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
- ※ 문의처 :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(☎ 02-2133-6875, 6876)

- ## 11. 선정자 발표
- : 2015. 3. 6(예정) 추첨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(서울시 인터넷 TV) 하고 추첨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
- ※ 추첨 중계날짜와 시간은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
 - ※ '12 ~ '14년 기 활동하신 위원의 신규참여 불가함